

전임직원 10여년 구슬땀

전산품 인쇄기 국산화 성공

특허 · 수출까지 ... 상업용 윤전기 개발 도전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고모리. 널따란 카페 촌과 낡시터가 자리잡고 있는 이곳은 지근 거리에 광릉수목원이 자리잡고 있어서 가족 단위로 주말여행을 꿈꾸는 이들의 발걸음이 잦은 곳이다. 하지만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이곳에 휴식이 아닌 인쇄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 카페 촌 끝자락을 벗어나자마자 위치한 국제전산품기계의 직원들이 그들이다.

공장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만 따진다면 한적한 시골 동네의 조그마한 회사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외면 가지고 내린 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1993년부터 전산품인쇄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국내 유일의 비즈니스 폼 오프셋 윤전 인쇄기계 생산업체이며, 전산용 로타리 코레이터 및 봉합엽서 압착기 기계 특허권을 소지하고 있는 알차기 그지없는 회사이다.

기술력 하나로 외국의 인쇄기계들을 제치고 전산품 기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의 근간엔 20여 년간 전산품 기계 개발에 매달려온 이해구 사장과 이 사장을 믿고 10여년이 넘게 묵묵히 일해온 직원들의 땀방울이 있었다.

이 사장이 전산품 기계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86년경으로 일본에서 들여온 전산품 기계들을 수리하면서부터이다. 동업의 형태로 유지해 오던 회사가 부도의 시련을 겪은 이후 이 사장은 1990년부터 수입 제품의 수리가 아닌 국내 생산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전문 수리공으로 눈썰매가 뛰어난 이 사장은 3년여의 연구개발 끝에 일본 제품이 판치고 있던 시장에 국산 전산품 기계를 내 놓았다.

이사장이 첫 번째 작품을 내놓을 당시의 국내 사정은 아키라, 미야꾸시 등 일본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터였다. 이런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이 사장은 일본 기계와 비교 우위를 위해 조작성을 간단히 하고 납품 단가를 낮추는 등 나름대로의 방안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 사장의 준비된 시장 진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너무나 냉담했다. 기술력은 눈여겨보지 않고 단지 국산 기계라는 이유로 전산품 인쇄 업체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것이다. 이사장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저 국산 기계라는 이유로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긴 너무 억울했죠. 인쇄종주국이라는 나라에서 내세울 만한 인쇄기 하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회사의 운명도 운명이지만 포기해선 안 된다는 어떤 신념이 저와 직원들이 첫 번째 시련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시장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이 사장은 전산품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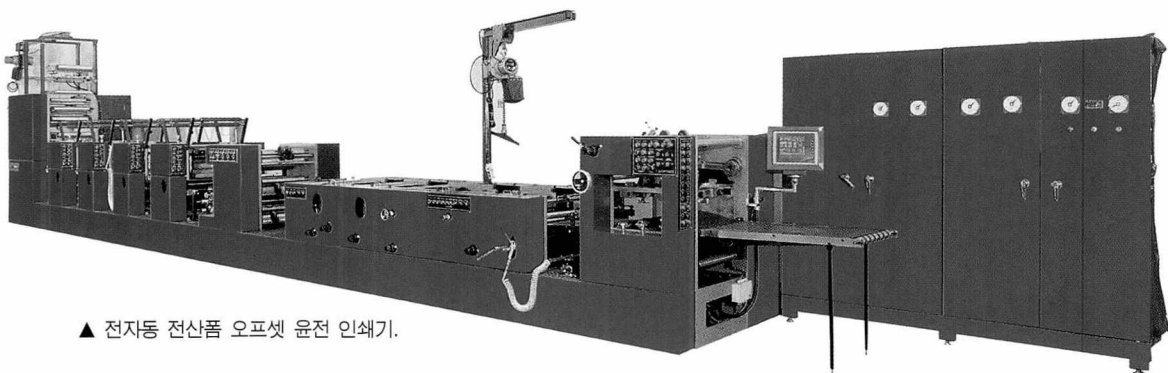
업체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한번만이라도 국제 기계의 성능을 선보일 기회를 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했다.

이 사장의 이러한 노력 끝에 공장을 방문한 몇몇 인쇄업체 대표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국제 전산품 기계의 성능에 반해 선뜻 계약을 주었고 한번 인정받은 성능은 입 소문을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첫 제품을 내놓은 1년 후인 1994년엔 인도네시아에 일본 제품을 제치고 수출까지 이루는 쾌거를 이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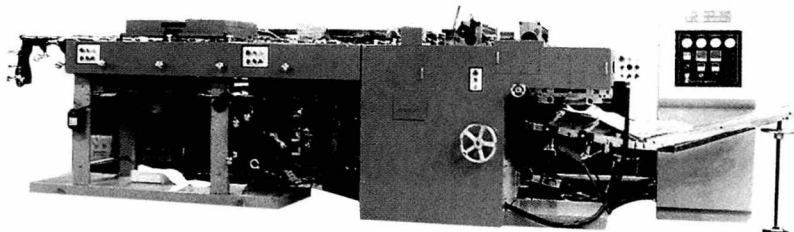
국제전산품기계가 선보인 제품들

93년 전산 품 오프셋 인쇄 기계 하나에 매달려온 국제전산품기계의 전산품 인쇄기계는 2번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 93년은 전산품 인쇄 자체에 매달렸던 기계였다.

전용 코레이타 기계가 개발되지 않아서 인쇄는 가능했지만 접지나 대천공 작업등은 외국 기계의 힘을 빌려야 했다.



▲ 전자동 전산품 오프셋 운전 인쇄기.



◀ 전산용 로타리 코레이타 및 통합염서용 기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5년 코레이타 개발에 착수한 국제전산품기계는 96년 국내 기술력으로는 처음으로 코레이타 개발에 성공했다.

2000년에 개발된 MODEL KJ-2000은 코레이타와 봉합엽서압축장치 등이 장착된 국제전산품기계의 야심작이다.

MODEL KJ-2000은 급지부, 오프셋인쇄부, 봉합엽서 풀칠장치 및 봉투부, 가공부, 접지부, 전기조작부로 나누어져 있다.

급지부의 특징은 안정성이다. 파우더 브레이크 콘트롤에 의해 종이의 안정된 급지가 이루어지며, 검출샤프트 제어축이 종이의 주름을 방지한다.

오프셋 인쇄부의 특징은 간편성과 인쇄 품질의 향상이다. 유니트 교체를 윈터치 방식으로 채택하여 교체 시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되었으며, 잉크의 세척 장치 또한 탈착이 가능해 자동으로 잉크를 세척할 수 있다.

인쇄 품질의 향상을 위해 잉크 량 조절은 캠 클러치로 조절되는데 이로 인해 미세한 잉크의 송출도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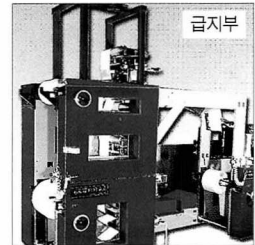
봉합엽서 풀칠 장치 및 봉투부는 전동식 조작 방식으로 조절됨으로 고부가가치의 봉투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전, 후진 모터 부착으로 핀 맞춤이 용이하고 풀통이 상 하 좌우로 조정됨으로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공부에는 미싱 압통이 2개 설치되어 있어 다량 생산의 변칙 미싱 작업을 할 수 있어 작업 능률이 향상된다. 또한 카본, 스템플, 대천공 작업도 옵션으로 선택하면 많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접지부는 접지 크리크 부착으로 접지폭을 조절 할 수 있다. 접지 중에도 전 후진이 가능하며 작업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동 고속 접지 기능으로 얇은 종이에서 두꺼운 종이까지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모든 기능들은 전기조작부에서 조절되는데 체형에 알맞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각 파트별로 기계의 운전은 물론 운영자의 편리함까지 감안한 장치이다.

또 하나의 대표 상품인 봉합엽서 압축기는 2000년 6월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특허청의 특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내용물과 봉투 작업이 일원화됨으로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봉투의 효과를 가져와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사용이 간편하고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성이 우수해 고속작업에 용이하다.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보람

국제전산품기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기술력이다.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개발 기간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이익의 상당부분을 개인의 부가 아닌 기술개발에 재투자하고 있다. 기술력 투자에는 두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기술력 자체에 대한 투자와 기술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 이해구(왼쪽) 사장이 직원과 함께 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직원들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20여 명의 직원 중 상당수가 회사 설립 초기부터 10년이 넘게 운명을 같이 해온 이들이다.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시달린다고 하지만 최대한의 예우를 해 준다면 그들이 왜 회사를 떠나겠어요. 초창기 때부터 나와 함께 해온 이들은 그야말로 회사의 보배지요. 그들이 떠난다면 난 그야말로 돈으로 투자해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기술을 잃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연구개발이 기술력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득을 남기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겠지만 나름대로 직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직원들이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고 회사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어진다.

중 고등학교 자녀들을 둔 직원들의 경우 월급과는 별도로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대학 진학의 경우 별도의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해외 전시회의 경우도 이 사장의 배려로 임직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 물론 전시회 기간에 공장이 제대로 운용되진 못하지만 몇 일간 공장을 운영해서 얻는 이득이 해외 전시회 참가에서 가져오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에 못 미친다는 이 사장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만족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것

국제전산품기계는 국내 시장에서 확실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초창기 일본 제품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극복하고, 50여곳 국내 전산품 인쇄 업체에 꾸준히 납품하고 있으며, 98년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14대를 납품하기도 했다. 아울러 94년부터 시작한 인도네시아 수출에 이어, 중남미 지역과 중국을 대상으로 활발한 수출 교섭 협상이 진전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외국의 제품과 동등한 비교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변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은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산품 인쇄이지만 인쇄기 개발에 성공한 셈이잖아요. 이제 전산품 인쇄기가 아닌 정식 오프셋 운전기를 한번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이미 머리 속에선 나름대로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서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는데 경기를 좀 살펴보고 채산성이 맞는다면 시도할 만 한 것 같아요”

황무지와 다른 없던 시장에 국산 인쇄기 개발에 성공, 우리나라 인쇄기 개발 역사에 하나의 획을 남겼던 국제전산품기계.

국내 인쇄기 개발업체들의 또 다른 자극제로 작용할 그들의 새로운 도전이 기대된다.

이용우 기자 <photoyw@print.or.kr>